

집·일자리 지원...청년 돌아오는 매력 나주 만든다

나주시 '청년 패키지' 본격 가동 취업 청년에 공동주택 무상 임대 11개월간 월 15만원 임금 지원 산단 통근버스·배움바우처 지급

나주시가 주거부터 일자리, 평생교육까지 청년의 취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청년 패키지'를 내놓으며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나주'를 만든다. 올해는 나주 4개 산단을 오가는 공동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1인당 15만원 상당 수강료를 지원하는 '나주에(愛) 배움바우처'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나주시역 20~30대 인구는 2만5616명으로, 전년보다 1020명(-3.8%) 감소했다.

나주 20~30대는 혁신도시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 2014년 1만9977명에서 4년 뒤인 2018년 2만7825명으로 치솟았지만, 혁신도시 효과 반영하면서 2만7272명(2019년)→2만7005명(2020년)→2만6636명(2021년)→2만5616명(지자체) 등으로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새해 시정 3대 핵심 전략 가운데 '청년 패키지'를 내걸며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나주' 만들기에 사동을 걸었다.

청년 패키지는 취업 청년의 주거 지원과 지역 특화사업에 맞춘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층의 평생교육·문화생활 지원 등으로 크게 나뉜다.

시는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형 공동주택'을 무상 임대할 계획이다. 가족 동반 또는 취업 가구를 위한 '독립주택형'으로 맞춤형 공간을 별도로 제공한다.



지난해 나주시 빛가람호수공원에서 열린 '8회 나주시 잡(JOB) 페스티벌'에 청소년들이 참여해 진로·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나주시 제공>

우선 사회보장협의,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주거 지원에 나선다.

나주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임금 지원 시책도 눈여겨보면 좋다. 나주 혁신산단 입주기업에는 5인 이내에서 1인당 11개월간 월 15만원의 임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전·월세 주택 거주 근로 청년에게는 1년간 월 10만원, 신혼부부는 2년간 월 15만원을 각각 지원

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저탄소·지능형 소재부품, 재생 가능 에너지, 첨단운송기부품 등 지역 주력·기반산업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에 청년 연구인력을 고용할 경우 최대 2년간 200만원 이상 임금도 지원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년간 1000만원을 보탠다. 정규직 전환 혜택은 에너지신산업 성장 플랫폼 등 특화산업, 마을 단위 청년 활동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주시는 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혜택을 마련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의 경우 최장 3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 정착금을 지원

한다. 나주시는 민관 협력 맞춤형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 지원하는 데도 힘쓴다. 목포대와 전남대(여수캠퍼스 스마트융합공정 공학과 등 4개 학과) 재학생 가운데 나주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등록금 75만원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기업을 물려받는 2세 경영자나 청년 창업자에게도 임차료와 재료비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교육, 상담을 벌여 청년 창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기로 했다. 청년들이 맞춤형 취업 상담을 받고 일자리 정보를 얻는 '청년 일자리 카페'도 운영한다.

산단단지과 주거지를 오가는 공동 통근버스를 도입해 출퇴근 편의도 돕기로 했다. 청년 패키지는 청년에 배움과 문화 활동의 기회를 넓혀며 마지막 단추를 끼운다.

나주시는 19세 이상 시민에게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나주에(愛) 배움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지역 특화형 학습활동에 대한 수강료 15만원을 모바일 지역 화폐로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직장인 대상 야간 강좌, 청년센터, 청년희망학교 등을 통해 어학·경제·문화·예술·여가·취미 등 수요자 맞춤형 평생 학습을 폭넓게 제공한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주거·일자리·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이 전략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취업 전 주기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재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며 "산업단지 기업들의 구인난도 해소하고 문화·여가 생활 지원을 통해 나주에 매력을 느끼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 코로나로 멈췄던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행



함평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동안 멈췄던 '찾아가는 건강드림 행복버스'〈사진〉를 올해부터 다시 운행한다.

올해는 지역 경로당 132곳을 찾아 고령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드림 행복버스는 의료시설 접근이 불편한 취약지역을 일주일에 4회 방문할 계획이다.

함평군 보건소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드림 행복버스를 운행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잠정 중단했다.

행복버스에서는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양·한방 치료와 치과 치료, 물리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보건 교육과 의료 상담도 진행한다.

정명희 함평군 보건소장은 "행복버스를 통해 연간 9000여 명의 주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취약계층 993세대 난방비 20만원 2차 긴급지원

지난달 1차 이어...예비비 편성

장성군이 고령 1인 가구의 겨울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긴급지원을 벌인다.

군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지역 고령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난방비 예비비'를 편성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993세대이다. 이들은 가구당 20만원을 난방비로 받는다.

장성군은 지난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 노인 1288명과 한부모 가정 115세대에 가구당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 2차 지원을 마무리하면 모두 2881명의 저소득층 고령자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얻는다고 군은 설명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난방비를 받을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가 진원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있다. <장성군 제공>

김한중 장성군수는 "세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자 한다"며

"모든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흥군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등산로 58곳 중 23개 노선 통제

장흥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등산로 입산통제구역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기로 했다. 지역 전체 등산로 58개 노선(191.4km) 가운데 23개 노선(74.8km)이 이 기간 입산이 통제된다.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 같은 소각 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흥과 보성, 고흥 3개 권역은 공동으로 산불 진화 열기를 입차해 대형 산불의 초기 진화 태세를 갖췄다. 산불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장흥 사자산과 부용산 등 주요 거점에 무인 산불감시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틀 동안 '2023년 산불방지대책 기본 교육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군은 산불종합상황실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6명으로 구성된 산불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했다. 마을별로는 차량, 확성기 등 산불 진화과 운송체계를 완성했다. 군은 산불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반상화보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산불예방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산불은 장흥의 산림자산을뿐만 아니라 주민의 재산·생명까지 위협하는 사항"이라며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산불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청자타고 강진으로 토크인 딸기' 제51회 전남 강진청자축제 특별 행사로 마련된 '청자타고 강진으로 토크인 딸기'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강진 특산품인 딸기를 활용해 만든 다양한 메뉴와 청자식기, 청자소품이 어우러지는 딸기 파티로 3월 1일까지 청자축제장에서 열린다. <강진군 제공>

화순경찰 아동안전지킴이 36명 선발 발대식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 활동

화순경찰은 최근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다음달 6일부터 초등학교 주변 아동안전보호 활동에 돌입한다. <사진>

아동안전지킴이는 체력검정과 업무이해도 등 면접을 통해 책임감 있는 지킴이 36명을 선발했다.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된 어르신들은 오는 12월까지 10개월간 치안보조인력으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배치돼 아동 범죄피해·교통사고 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송기주 화순경찰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 어르신들께서 보람있는 활동으로 안전한 화순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화순 초·중·고생, 버스 100원에 탄다

화순교통과 '100원 버스' 업무협약

화순군이 3월 2일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시행한다.

군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화순지역 초·중·고등학교생이라면 화순지역 안에서 탑승 구간에 상관없이 교통카드로 100원만 부담하면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100원 버스' 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낼 때는 기존 요금인 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화순군은 23일 '100원 버스'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겠다는 업무협약을 화순교통과 맺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지난 2020년 10월에 시행한 1000원 버스에 이어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시행으로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화순을 순환 버스 도입, 맘(mom)편한 100원 택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 교통복지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세얼굴

"지역주민과 소통 넓혀 신뢰 높이겠다"

김태균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지역 주민과 소통을 넓혀 '좋은 법원'의 인상을 남기고 싶습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에 새로 부임한 김태균(42·사진) 지원장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신임 지원장은 장흥지원 청사 신축 현안에 대해 "114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장흥지원의 숙원 해결을 위해 차지단체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소통을 해 신뢰를 얻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원장은 앞으로 관행적이고 필요하지 않은 행사를 줄이고 외부와 소통을 늘려 법원 분위기를 신선하게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목표 출신인 김 지원장은 성균관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2005년 사시 47회(연수원 37기)에 합격했다. 광주지방법원 근무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